

# 제주형 중소기업생태계 구축의 2021년



제주시론

강기춘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전 제주연구원장  
본설위원

2020년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제주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021년은 세계경제, 한국경제, 제주경제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시키고 경제 회복→경제 활성화→경제 재편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데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형성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경제’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2018년 기준)은 사업체 수(전국 99.92%, 제주 99.97%), 종사자 수(전국 83.06%, 제주 95.05%), 매출액(전국 48.49%, 제주 79.2%) 모두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실정으로 제주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010년 12월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 성장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심체 역할을 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하는 기존의 상생협력에서 대기업은 비용 최소화, 중소기업은 파이의 공정한 배분에 초점을 두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은 조연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비용 최소화를 통한 이익 최대화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목표 이익을 달성하여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생태계 기반의 상생협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생태계란 생산자와 그의 경쟁자, 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자 등이 상호 경쟁하고 공생하며 발전하는 역동적인 경제 공동체를 말하는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가 작동하는 기업생태계, 중소기업이 주역이 되는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대기업이 먼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은 이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대기업의 성장을 도와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제주로 본사를 이전해 정착한 IT기업과 화장품 산업에서 제주산 원료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하는 대기업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Company to Company Responsibility) 차원에서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생태계 기반 상생협력 모델을 선

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4가지 요소는 인적자원, 금융, 서비스, 지식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원활한 흐름이므로 지식의 흐름을 막는 장벽들을 낮춰야 하고 보다 많은 지식이 조직 내외로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사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기술 및 프로세스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개방 협력(open innovation)이 필요하다.

세계에서 중소기업이 강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인 미텔슈탄트의 성공 요인으로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점진적 혁신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정신, 틈새시장에 자원을 집중하면서 고객의 수요 변화에 맞추기 위한 내부 혁신 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주지역 기업생태계의 문제점으로 낮은 창업 선호도,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콘텐츠 부족, 신용보증 및 은행대출 이용의 제한, 지원기관 간 중복 업무, 지자체 중심의 생태계 조성 등을 들고 있다. 2021년이 독일의 미텔슈탄트를 벤치마킹하되 제주 고유의 문제, 지리·문화적 특성, 경제상황 등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통해 제주지역에 최적화된 제주형 중소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